韓國의 角筆符號口訣과 日本의 訓點에 나타나는 華嚴經의 不讀字 用法

尹幸舜*

요 약

본고는 한국의 각필부호석독구결과 일본의 훈점자료인 화엄경의 한문독법에 나타나는 不讀字의 용법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漢文을 解讀하는 데 있어서 助辭로 나타나는 不讀字는 이에 해당하는 漢字를 直接 읽지 않고, 그 漢字의 意味에 가까운 自國語를 그 한자의 前後에 기입해서 읽는 것과 그 前後에 아무 것도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

한국의 화엄경 4권에 나타나는 不讀字는 「於·之·于·與」의 4種이며, 일본의 화엄경에서의 不讀字는 「於·之·于·與·則·而·及·邪(耶)·者·乎」 등의 10種이다. 이 중에서 한일의 화엄경에서 모두 不讀字로 사용된 「於·之·于·與」는 漢文의 字句보다 解讀文에 나타나는 自國語에 중점을 둔 가점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而·則·及」의 경우에는 일본의 화엄경에서는 不讀字로 취급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화엄경에서는 모두 점토를 가점하고 있다.

「而·則·及」에 대해서 문장의 내용에 관계없이 점토구결을 가점한 것은 이러한 助辭類가 漢文에서의 接續詞 用法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지만, 이것을 읽을 것인가 읽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한문의 독법은 매우 다

* 한밭대학교 교수

르게 나타난다. 즉 「而·則·及」의 不讀字의 解讀 여하는 漢文과 自國語를 얼마나 조화시키면서 漢文의 文脈을 이해했는가를 아는 데 重要한 관점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而·則·及」에 점토를 가점하고 있는 한국의 화엄경은 原漢文의 字句를 尊重한 直譯的인 讀法인 데 비해서, 일본의 화엄경에서와 같이 「而·則·及」을 不讀字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漢文의 文脈보다 自國語의 표현에 중점을 둔 意譯的인 가점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핵심어: 華嚴經, 不讀字, 助辭類, 角筆符號口訣, 訓點資料

1. 머리말

한일 양국의 문자생활에 있어서 오랜 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漢字·漢文은 양국의 자국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문은 문자로서 한일 양국어와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자국어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국어와 똑같이 용이하게 읽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갈망은 漢字·漢文을 자국어에 활용한 단계가 다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한문독법에 있어서 일본은 9세기경부터 문자와 부호의 사용에 의한 訓讀이 이루어졌으며, 14세기경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자에 의한 訓讀이 一貫性 있게 행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한문독법의 자료가 발견됨으로써 그 발전단계가 일본보다 더욱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현대의 順讀口訣은 墨書文字釋讀口訣에서 簡素化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沈在箕 1975, 南豊鉉·沈在箕 1976), 최근의 角筆符號釋讀口訣資料 발견에 의한 연구에서 동사를 읽는 點吐口訣을 원칙적으로 문장의 마지막 구성소에 몰아서 가점하는 특징은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의 順讀口訣에 가까운 형식으로서, 順讀口訣의 발생은 墨書文字釋讀口訣

에서 직접 발달한 것이 아니라 角筆符號釋讀口訣에서 발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南豊鉉 2000). 이와 같은 漢文讀法의 여러 발전단계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符號 등을 사용하여 漢文을 釋讀하는 방법을 考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漢文의 行間에 自國語의 語順으로 읽어내려 갈 수 있도록 표기한 역독부호나, 조사나 조동사 등을 표기하기 위한 星点이나 線點 등을 사용하여 自國語와 다름없이 漢文을 정확하게 理解하기 위한 방법이다.

상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漢文讀法은 매우 다른 발전단계를 거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發展狀況은 兩國의 漢文讀法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한일 양국어의 文章構造가 매우 類似하다는 점에서, 漢文讀法에 있어서도 그 類似性을 가지고 發達했을 가능성과 함께, 그 다른 發達 過程은 여러 가지 用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점도 발견되리라 생각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필자는 이전에 한국의 12·13세기의 墨書文字釋讀口訣資料와 일본의 11·12세기의 訓點資料에서 나타나는 助辭類의 不讀字의 용법에 대한 비교 검토를 시도한 바가 있다(尹幸舜 1999). 한문독법에 있어서의 不讀字는 주로 助辭를 中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漢文을 釋讀하는 데 있어서 助辭에 해당되는 漢字를 直接 읽지 않고, 그 漢字의 意味에 가까운 自國語를 그 한자의 前後에 기입해서 읽는 것과 그 前後에 아무 것도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독법에서 나타나는 助辭「於·者·之 于·耶 ·而·以·則·及」 중에서 「於·者·之·于·耶」의 종류는 한일 양국의 資料의 讀法에서 모두 不讀字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漢文의 字句보다 加點하는 自國語를 重視한 態度를 엿볼 수 있으며, 이외의 「而·以·則·及」의 종류는 한국자료의 독법에서는 不讀字에 해당하는 助辭의 한자에 모두 文字口訣를 기입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자료의 독법에서는 不讀字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不讀字의 기입 상태는 한문

독법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독자의 용법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국어와의 긴밀도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국어와의 긴밀도보다는 한문의 성격을 중시한 독법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本論에서는 위의 연구와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최근에 한국에서 발견된 角筆符號口訣이 加點된 화엄경과 일본의 화엄경에 있어서 不讀字로 나타나는 助辭를 중심으로 그 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1] 이에 대한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角筆符號釋讀口訣의 부독자의 용법이 墨書文字釋讀口訣의 그것과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며, 또한 한일 양국의 화엄경에 있어서의 부독자의 용법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이다. 더 나아가서 일본의 화엄경의 부독자의 용법과 후대의 일본 훈점자료와도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고찰해 본다.

본 연구의 한국의 중심자료는 角筆符號釋讀口訣資料인 誠庵古書博物館藏 周本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卷第二十二·卷第三十六·卷第五十七의 四卷이다. 이 板本은 11世紀後半에서 12世紀初期라고 推定되고 있는 것으로서 再雕大藏經의 底本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木板卷子本이다. 이 四卷의 資料 중에서 卷第六과 卷第三十六은 國寶204號와 203號로 지정된 귀중한 자료이다. 角筆符號釋讀口訣의 加點은 판본이 인출되고 난 후의 멀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鄭在永 외 2003). 이 자료들은 全卷에 걸쳐서 매우 다양한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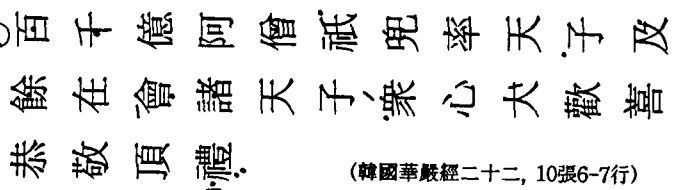
1) 漢文에서 助字의 槪念은 諸橋轍次「大漢和辭典」의 助辭의 項目에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그(助辭) 見解는 古來로부터 一定하지 않다. 주로 前置詞(於·于)·後置詞(之·者)·助動詞(令·使)·轉接詞(而)·終詞(也·矣·邪·哉) 등, 一定한 뜻이 없고, 단지 實字를 도와서 語氣를 强弱緩急, 節奏의 抑揚疾徐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國語의 조사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또 體言이 아닌 動詞·形容詞·副詞, 또는 是·斯等의 代名詞도 포함하는 것이 있으며, 혹은 前者는 助字, 後者를 虛字로서 區別하는 사람도 있다.」

태의 點과 線을 이용한 角筆點의 부호에 의해서만 한문내용을 상세하게 읽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일본의 대상 자료는 京都의 石山寺에 전해지고 있는 華嚴經으로서 新譯華嚴經八十卷本으로 七十八卷이 [石山寺一切經]으로서 전해지고 있다. 이 중 五十七卷이 8, 9세기의 書寫本으로 毛筆에 의한 白點이 全卷에 걸쳐서 3종류의 訓點이 상세히 加點되어 있다. 이 중에서 白點의 胡粉이 가장 잘 보존되어 판독이 용이한 훈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제2차점으로 본 연구에서 비교대상도 제2차점의 자료가 중심이 된다(築島裕 1978:923~6, 大坪併治 1992:4~5, 築島裕 1996:84~7). 제2차점의 加點年代는 貞觀경(860경)으로 卷第二十一~卷第三十一, 卷第三十三, 卷第三十五一~卷第四十二, 卷第六十四~卷第七十八, 卷第八十의 三十六卷이 된다. 원문에는 則天文字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전권에 걸쳐서 간략한 仮名점과 좌변에 「テ・ニ・ハ」로 나타나는 特殊點乙類로서 소박한 오코토점을 사용하여 상세한 훈독을 하고 있다(築島裕 1996:329~330).

이상과 같이 한일 양국의 화엄경의 비교자료에 加點年代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에서의 한문 독법에 대한 연구는 兩國 국어사의 語法이나 문장의 표현 연구 등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韓·日華嚴經에서의 加點形態



(韓國華嚴經二十二, 10張6-7行)

[百ㄱ千ㄱ億阿僧祇ㄴ兜率天子ㅣ及ㄴ餘ㄱ會ㅓ在ㅅxㄱ諸ㄱ天子衆ㅣ ㅅ仝ㄱ心ㅎ 大ㄲ 歡喜(ㅅ)ㅈ(ㅂ)恭敬頂禮讚歎xㅁㄹxㅂ]2)

百千億阿僧祇兜率天子及
餘在ㅅ會ㅓ諸天子衆心大歡喜
恭敬ㄴ頂禮

(日本華嚴經二十二, 8張20-21行)

[百千億阿僧祇の兜率天子, 及餘の會に在ハべる諸の天子衆は心に大歡喜して恭敬し頂禮す.]3)

②佛子此菩薩摩訶薩爲利益
衆生ㅣ故世間技藝靡不該習
所謂文字算數圖書印璽地
水火風種種諸論咸所通達

(韓國華嚴經三十六, 11張10-13行)

[佛子ㅈ 此 菩薩摩訶薩ㄱ 衆生ㄹ 利益(ㅅ){爲}ㅅxㄴ{故ㅈ} 世間ㅈ

2) 본 연구의 점토구결문은 구결학회의 연구자들의 모임에서 공부하고 있는 해독문을 참고하였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해독문에 「x」로 표기된 점토구결은 아직 미상인 것을 나타내며, 본 해독문은 앞으로의 연구의 진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둔다.

3) 본 연구의 일본 화엄경의 해독문은 필자와 김영욱 선생님의 자료조사본과 大坪併治(1992)『大方廣佛華嚴經 古点の國語學的硏究』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傍訓은 片仮名로, 오코토점은 平仮名, ( )의 표기는 補讀을 나타낸다.

ㅌ 技藝ㄹ 該習(ㅅ)ㄱ 不(ㅅㄱㅜㄴㄱ) 靡ㅂ(ㅅ)ㄴㅎㅌㅣ 謂ㄱ所ㄱ 文字ㅅ 筭數ㅅ 圖書ㅅ 印璽ㅅ 地水火風 種種ㅌ 諸ㄱ 論ㅅㄱㅁㄱ 咸ㅌ 通達(ㅅ)ㄱ 所ㅂX分]

佛子此菩薩摩訶薩爲利益
衆生故世間技藝靡不該習
所謂文字算數圖書印璽地
水火風種種諸論咸所通達

(日本華嚴經三十六, 9張20-23行)

[佛子此 (の) 菩薩摩訶薩は衆生を利益 (せし) め (む) が爲の故に世間の技藝を該習 (せ) 不ずといふこと靡シ, 謂所る文字と算と數と圖と書と印璽シ反と地と水と火と風との種種の諸論におきて咸く通達せる所なり.]

상기의 예는 한국의 角筆符號釋讀口訣과 일본의 白点의 訓點인 화엄경의 동일한 부분으로서 그 讀法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과 상위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일의 화엄경에서 가장 큰 相違点은 일본의 화엄경에서는 해당되는 한자의 구성소에 훈점을 가점하는 데에 비해서 한국의 화엄경에서는 點吐口訣을 원칙적으로 문장의 마지막 한자의 구성소에 몰아서 가점하는 특징 때문에 일본의 화엄경에 비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해독하는 데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양국의 언어구조 안에서 동일한 문장의 독법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는 매우 흥미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①의 문장 독법을 살펴보면, 「百千」의 數字를 한국의 화엄경에서는 「百ㄱ, 千ㄱ」으로 훈독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일본의 화엄경에서는 음독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화엄경에서는 「及ㄴ」의 독법으로서 한자의 전후에 병렬의 조사 「ㅣ」를 「兜率天子ㅣ, 天子衆ㅣ」와 같이 가점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일본의 화엄경에서는 병렬의 조사를 加點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의 화엄경에서는 「餘ㄱ」과 「大ㅐ」를 훈독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일본의 화엄경에서는 음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동사의 독법에 있어서는 한국의 화엄경은 「在ㅅxㄱ」으로 음독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일본의 화엄경은 「在ハべる」로 훈독하고 있다. 다음의 ②의 문장의 독법에서는 양국의 화엄경이 동일하게 음독하는 곳이 많은데, 다만 병렬의 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한국의 화엄경에서는 「文字ㅣ算數ㅣ圖書ㅣ印璽ㅣ地水火風」와 같이 숙어를 중심으로, 일본의 화엄경에서는 「文字と算と數と圖と書と印璽シ反と地と水と火と風と」와 같이 한자어를 중심으로 가점하고 있다. 이러한 독법태도는 양국의 가점자의 단어 의식을 엿볼 수 있다.

3. 韓·日 華嚴經에서의 不讀字의 同一用法

한일어의 문장을 漢文으로 읽어 내려가는 데 있어서 생기는 助辭類의 不讀字는 文獻의 內容에 따라서 또는 독법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本論의 中心이 되는 화엄경의 한국의 角筆符號釋讀口訣에서 나타나는 부독자와 일본의 훈점에서 나타나는 부독자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언어의 구조가 유사한 한일어의 한문독법에서는 同一한 부독자 용법을 기대할 수 있는 면도 있으며, 또한 相違한 용법에서는 한문독법의 차이로 인정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비교 대상이 된 화엄경이라는 자료에서는 한국의 12·13세기의 墨書文字釋讀口訣資料와 일본의 11·12세기의 訓點資料에 비하면, 助辭類의 부독자의 종류와 빈도가 다양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의 화엄경 4권에서 나타나는 不讀字는 「於·之·于·與」의 4種이며, 일본의 화엄경에서의 不讀字는 「於·之·于·與·則·而·及·邪(耶)·者·乎」 등의 10種이다. 이와 같은 不讀字의 종류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양국의 비교 자료의 분량에서 기인되는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화엄경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則·而·及」이 일본의 화엄경에서와 같이 不讀字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양국의 부독자 용법의 차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여기서는 한일 화엄경에서 不讀字가 동일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를 검토하기로 한다.

3.1. 於

①於 座 上 結 跏 趺 坐

(韓国華厳経六, 4張18-19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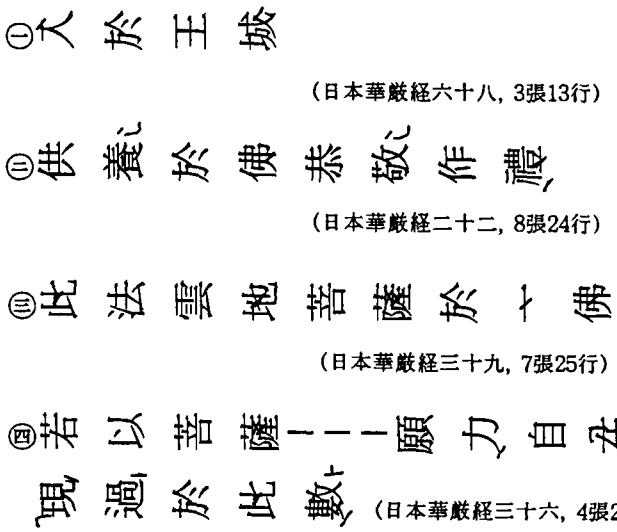
②供 養 於 佛 恭 敬 作 禮

(韓国華厳経二十二, 10張10行)

③善 業 臥 於 後 不 悔 故

(韓国華厳経五十七, 16張20行)

④若 以 菩 薩 ― ― ― 願 力 自 在 示 現 過 於 此 數 (韓国華厳経三十六, 5張12-13行)



「於」는 諸橋轍次 「大漢和辭典」의 助辭의 항목을 보면, 「①句中에 위치해서 對抗·方向·日·時 등을 나타내는 助辭(に) ②句中에 위치해서 所發·原因을 나타내는 助辭(に, より) ③句中에 위치해서 비교를 나타내는 助辭(より, よりも) ④句의 앞에 위치해서 對向·位置·時相 등을 나타내는 助辭(おいて) ⑤目的을 나타내는 助辭(を) ⑥發語의 助辭, 接頭語로서 사용된다」 등을 들고 있다.

상기의 한국의 화엄경에서의 「於」를 나타내는 點吐口訣의 不讀字 용법은 「ㅓ」 「ㄹ」 「ㅢㅓ」로 읽고 있으며, 그 用法은 處格·目的格·補格으로 나타난다. 日本의 화엄경에서도 「於」의 不讀字用法은 「ニ」 「ヲ」 「ニシテ」 「ヨリ」의 補格·目的格·處格·比較로 나타나고 있다. 한일의 화엄경에서의 不讀字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④의 예의 한일 화엄경의 동일한 문장에서는 일본의 화엄경에서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수문자 「ト(ヨリ)」가 가점되어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의 화엄경의 예에서는 목적격 「ㄹ」로 읽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과 같은 동일한 문장을 다음에 제시한 바와 같이 華嚴經卷第36에서 1예를 추가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의 점토구결의 연구가 진전되면 다른 해독법도 기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若ヒ 菩薩尸 殊勝 願力乙 以ミ 自在ヲ 示現x尸矢ム(ㄱ)ㅣ十 {於}此數乙 過ㄱxヲ xㅜ 百ㄱ 劫(ㅅ) 千ㄱ 劫ㅅ 乃至ㅂ 百ㄱ 千ㄱ 億 那由他ヒ 劫ㅅノ个ラ十XX 數 知(レ尸) 不能(ㅂ)矢ノヲナㅣ(13張4-5行)

◦若(し)菩薩の殊勝願力と自在とを示現(する)ことは[於]此の數より過(ぎ)たり. 百劫千劫乃至百千億那由他劫にも數の知(る)こと能(は)不じ(11張-4-5行)

3.2. 之

①毛 孔 之 中· 出 化 雲

(韓国華厳経六, 3張9行)

②發 生 無 量 廣 大 之 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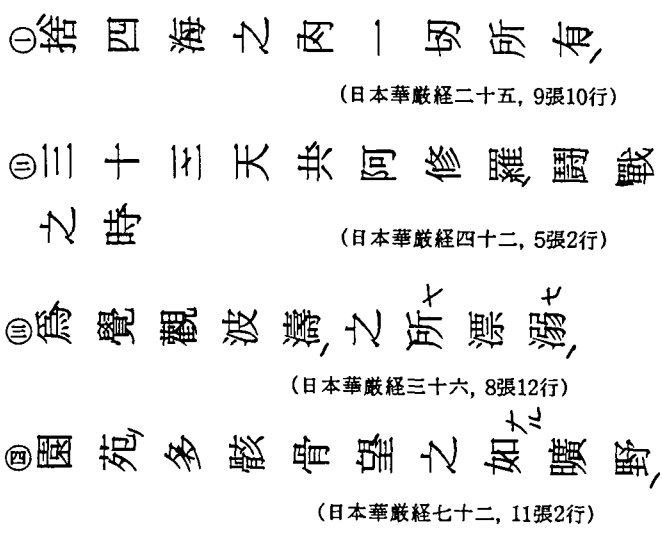
(韓国華厳経二十二, 18張14行)

③爲 觀 觀 波 濤 之 所 漂 溺

(韓国華厳経三十六, 9張21行)

④普 現 如 來 無 礙 之 身

(韓国華厳経五十七, 9張8行)



「之」는 諸橋轍次「大漢和辭典」의 助辭에 관한 항목을 보면,「①직접적으로 그 사물을 가리키는 辭, 强勢法의 客詞의 아래에 사용한다. 語勢를 강하게 하는 助辭(これ) ②語間에 넣어서 係屬(主格·所有格·句調를 완화하는 것)을 나타내는 辭」 등을 들고 있다.

상기의 한국 화엄경에서의「之」를 나타내는 點吐口訣의 不讀字 용법은「ㄴ」「ㅅㅌㄴ」「ㅭ」「xㄴ」로 읽고 있으며, 그 用法은 대개 連體修飾語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많고, 그밖에도 副詞句 등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화엄경에서도「ノ」「ニ」로 나타나며, 主格·所有格·副詞句와 같이, 한국의 부독자 용법과 일치하고 있으나, 일본화엄경 ②의 예에서는「三十三天、阿修羅と共に鬪戰する[之]時に」와 같이「之」의 부독자를 아예 읽지 않고 訓讀하고 있는 점은 한문의 어법보다 일본어 문장을 중시한 독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3.3. 于·與

①諸 佛 如 來 出 興 于 世

(韓国華厳経二十二, 17張21行)

②知 一 切 諸 禪 解 脫 及 諸 三 昧
若 垢 若 淨 時 與 非 時

(韓国華厳経五十七, 6張7-8行)

㉠所 有 諸 佛 出 興 于 世

(日本華厳経七十五, 18張21行)

㉡攝 受 於 我 處 于 此 座

(日本華厳経七十三, 11張18行)

㉢父 母 與 親 屬 宮 殿 及 財 產 一
切 皆 捨 離 (日本華厳経七十七, 18張11行)

㉣彼 幻 事 作 諸 幻 事 雖 不 與 彼
幻 事 同 住

(日本華厳経四十, 11張16-17行)

「于」는 諸橋轍次「大漢和辭典」의 助辭에 관한 항목을 보면, 「①發語의 辭(ああ, ここに) ②句中의 助辭(に) ③依據·比較하는 곳을 나타내는 助辭(より) ④疑問·感嘆을 나타내는 辭(か, かな) ⑤客語의 앞에

위치하는 辭 ⑥連及의 辭(と, および) ⑦語調을 조절하는 助辭」 등을 들고 있으며, 「與」는 並列의 助辭로서 「と, および, これとかれと」 등을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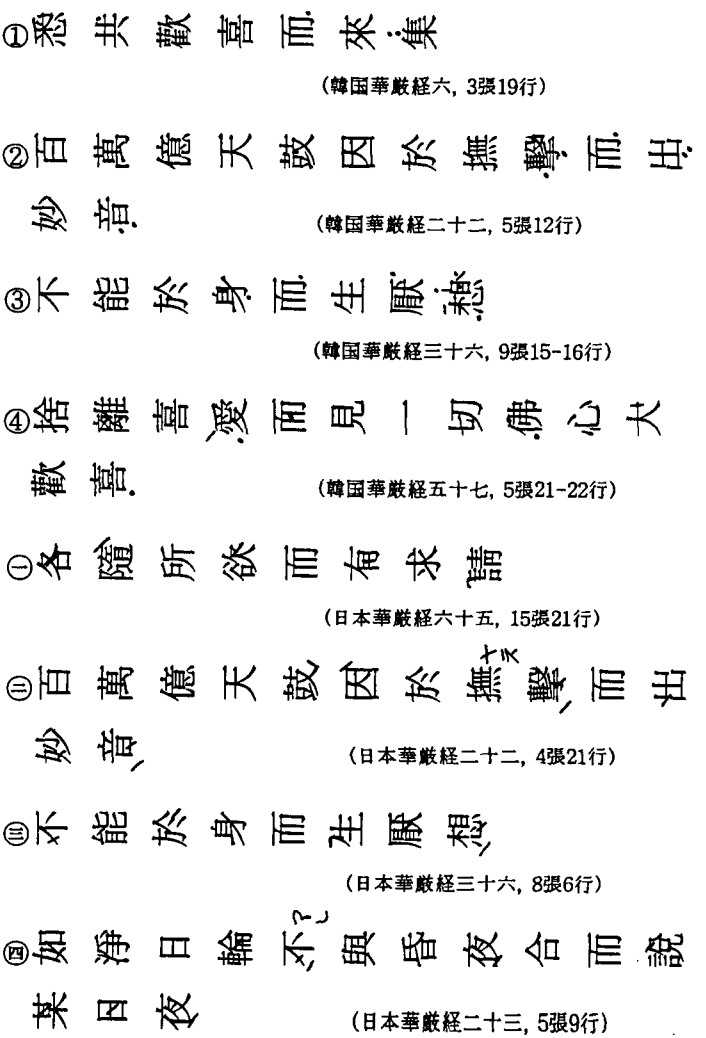
상기의 한국의 화엄경에서의 「于」와 「與」의 不讀字는 각각 1예만이 나타나고 있다. 「于」를 나타내는 점토구결은 「+x」의 補格으로 나타나며, 「與」는 병렬의 용법인 점토구결 「ㅅ」로 나타나고 있다. 日本의 화엄경에서도 「于」는 補格과 處格의 「ニ」로, 「與」는 병렬의 「と」로 나타나고 있다. 한일의 화엄경에서는 「于」와 「與」가 대체적으로 유사한 부독자 용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한일 화엄경의 角筆符號釋讀口訣과 훈점에서 나타나는 不讀字인 「於・之・于・與」는 그 用法에서도 대체적으로 漢文의 用法과 동등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일본의 화엄경에서는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이 助辭로서의 부독자 용법으로 「者・耶(邪)」 등이 소수이기는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의 화엄경에서 이러한 助辭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서 비교 대상이 되는 角筆符號釋讀口訣의 화엄경의 卷數가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에 제시한 한국의 墨書文字釋讀口訣資料에서는 「者・耶 (邪)」가 부독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菩提心は[者]猶良田の如し――菩提心は[者]猶淨日の如し(日本華嚴經七十八 4張29行)
- 發心してより已來は幾 (ばく) の時と爲せむか[邪](日本華嚴經七十三4張25行)
- 大王下 法輪リ丨ンフのフ[者] 法本如リカ 重誦如リカ---- 論議如リカンナ丨(舊譯仁王經上 15:22-25)
- 我ヲ 我フ 今ヨ[者] 何ヲ 所ラ十 在ンエフリラセロンア 不冬ノチフリラセ丨 ンア矢カ[耶](瑜伽師地論卷第二十08:19)

4. 韓·日華嚴經에서의 不讀字의 相違用法

4.1. 而



「而」는 諸橋轍次「大漢和辭典」의 助辭에 대한 項目을 보면,「①順接의 接續詞(て, して, しかして, にて, に於て, にありて) ②逆接의 接續詞(しかも, しかれとも, ても, しかるに, 去るに) ③竝列의 助辭(および, と) ④句末에 사용하여 語勢를 돕는 助辭 ⑤接續의 助詞(および, と)」 등을 들고 있다.

상기의 漢文의 用法에서도 알 수 있듯이,「而」의 용법은 일반적으로 前後의 語 또는 語句를 병렬적으로 接續하는 역할을 할 때 접속사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본의 화엄경에서는 接續助詞·副詞·條件句의 용법인「て」「に」「ど」로 나타날 때에는 不讀字가 되는 것에 비해서 한국의 화엄경의 점토구결에서는 반드시 点吐口訣을「而ㅭ」「而ㄱ」와 같이 加点하고 있으며,「而」를 읽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화엄경에서는 한문의 字句에 중점을 둔 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일본의 화엄경은 한문의 字句보다는 自國語로 읽는 독법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4.2. 則

①見佛眞實體·則悟甚深法

(韓国華厳経六, 18張12行)

②菩薩住此焰慧地·則能以十種智成熟法·故

(韓国華厳経三十六, 1張23-24行)

③若諸菩薩安住此地·則能不斷諸菩薩行 (韓国華厳経五十七, 1張18-19行)

㈠若有發ㇾ――――菩提心者則已出生ㇾ無量功德 (日本華嚴經七十八, 8張22-23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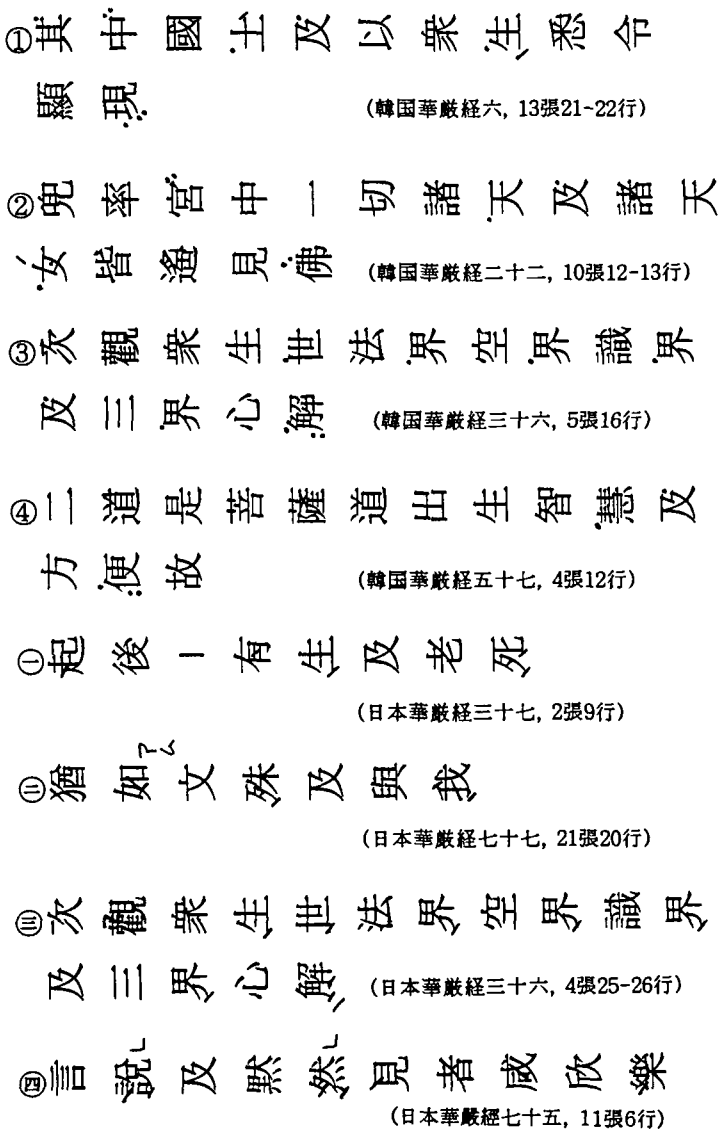
㈡若有衆生接ㇾ我唇吻ㇾ則離貪欲 (日本華嚴經六十八, 3張7行)

㈢若諸菩薩成就ㇾ十法則能――――菩薩之行圓滿 (日本華嚴經七十五, 8張6行)

「則」은 諸橋轍次 「大漢和辭典」의 助辭의 항목을 보면, 「①對待의 關係를 나타낸다(は) ②順接의 助辭、因果關係를 나타낸다(につれて, したがって) ③逆接의 助辭(しかも, しかるに) ④그밖에 すなはち, そこで, もし, あるひは, その, それ, ただ」 등을 들고 있다.

「則」은 일본의 화엄경에서 條件句의 仮定法인 「――ば」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不讀字로 나타나고 있는 데에 비해서 한국의 화엄경에서는 어떠한 문장에서도 반드시 「則ㅊ」와 같이 점토구결이 기입되어 있다. 이와 같이 「則」에 대한 가점 상태에서 상기의 「而」와 동일한 독법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한일 화엄경의 가점방법에 있어서 그 차이를 엿볼 수 있다.

4.3. 及


②其中國土及以衆生ヽ悉令
顯現
(韓国華厳経六, 13張21-22行)
②兜率宮中一切諸天及諸天
ノ女皆遍見佛
(韓国華厳経二十二, 10張12-13行)
③次觀衆生世法界空界識界
及三界心解
(韓国華厳経三十六, 5張16行)
④二道是菩薩道出生智慧及
方便故
(韓国華厳経五十七, 4張12行)
①起後一有生及老死
(日本華厳経三十七, 2張9行)
⑪猶如ヿ文殊及與我
(日本華厳経七十七, 21張20行)
⑩次觀衆生ヽ世法界空界識界
及三界心解ヽ
(日本華厳経三十六, 4張25-26行)
⑭言說レ及默然レ見者咸欣樂
(日本華厳經七十五, 11張6行)

「及」은 諸橋轍次「大漢和辭典」의 助辭의 항목을 보면, 「と, および, ならびに」 등을 들고 있다. 한문 용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及」은 文과 文, 句와 句, 語와 語의 接續詞로 나타나고 있으며, 후세의 일본의 훈독법에서는 「および」로 읽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화엄경에서는 「と----と」로 가점되어 있으며, 「及」은 不讀字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화엄경에서는 「及ㄴ」와 같이 點吐口訣이 加點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병렬의 조사 「ㅅ」의 點吐口訣이 나타나므로 二重으로 훈독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일반적인 훈점자료에서의 「及」의 讀法은 11세기 이후에 「辟除と及び護身と光澤水等の法せよ」(大東急記念文庫藏蘇悉地羯羅經供養法康平七年(1063點)의 예와 같이 「と--および--と」의 二重의 訓讀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9, 10世紀初期의 訓点資料에서는 二重訓讀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小林芳規 1959). 즉 日本의 華嚴經에서 「及」의 讀法은 初期의 不讀字用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화엄경의 훈점에서는 부독자로 취급되고 있는 「而·則·及」이 한국의 角筆符號釋讀口訣의 화엄경에서는 점토가 가점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而·則·及」은 漢文의 用法이 接續詞가 中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읽을 것인가, 읽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표현된 自國語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화엄경은 한문의 문맥 속에 위치한 접속사를 존중하는 讀法이라고 생각되는 반면에 일본의 화엄경은 한문의 문맥보다도 훈독되는 자국어에 중점을 둔 讀法이라는 면을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양국의 부독자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독자로서 「以」를 들 수가 있다. 한국의 墨書文字釋讀口訣資料에서는 문자구결이 가점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의 11·12세기의 訓點資料에서는 부독자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助辭 「以」이다. 본 연구의 중심 자료인 한일의 화엄경에서

도 「以」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데, 아래에 제시한 바와 같이 양국의 화엄경에서는 「以」를 전부 읽고 있다. 특히 11·12세기의 訓點資料에서는 부독자로 취급되고 있는 「以」를 일본의 화엄경에서 전부 읽고 있다는 점은 화엄경이라는 자료의 특성에 의한 것인지 加點者의 가점 방법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 一一ㄱ 身十(ア)ㅣ 千ㄱ 億 菩薩乙 以ㄴ亦 眷屬 {爲)ㅑㅁㄱ入乙 示リxヰ?(韓國華嚴經三十六13張4行)
- 一一身に千億菩薩を示して 以て 眷屬(と) 爲す。(日本華嚴經三十六 11張4行)
- 邪命ヒ 種種ヒ 行し 現ㅁㄴ 非法し 習行ンㄴ亦 以ㄴ 勝ンㄱ 爲ㅑ尸カンか(華嚴經卷第十四19:20)
- 皆, 悉(く)能(く)忍(ひ)て [以] 佛道を求む.(高野山龍光院藏妙法蓮華經卷第一7:19-8:1)
- 七紀を現して[而]化を陽ケて, [以] 住持(の)[之]本と爲したまへり.(天理大學図書館・國立京都博物館藏南海奇歸內法伝 卷一15:11)

5. 맺음말

한일 화엄경의 각필부호석독구결과 훈점에 있어서 助辭 「於·之·于·與·而·則·及」이 不讀字로 나타나는 용법은 漢文의 그것과 그다지 차이가 없지만, 양국의 부독자와 관련된 독법에 있어서는 그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문의 助辭類의 독법에 대해서 加點者의 자국어의 표현 방법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일의 화엄경에서 모두 不讀字로 사용된 「於·之·于·與」는 漢文의 字句보다 解讀文에 나타나는 自國語에 중점을 둔 가점 방법을 엿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而·則·及」의 경우에는 일본의 화엄경에서는 不讀字로 취급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화엄경에서는 모두 점토구결을 가점하고 있다. 「而·則·及」에 대해서 문장의 내용에 관계없이 점토구결을 가점한 것은 이러한 助辭類가 漢文에서의 接續詞 用法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읽을 것인가 읽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한문의 독법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즉 「而·則·及」의 不讀字의 解讀 여하는 漢文과 自國語를 얼마나 조화시키면서 漢文의 文脈을 이해했는가를 아는 데 重要한 관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而·則·及」에 점토구결을 가점하고 있는 한국의 화엄경은 原漢文의 字句를 尊重한 直譯的인 讀法를 엿볼 수 있는 데 비해서, 일본의 화엄경에서와 같이 「而·則·及」을 不讀字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漢文의 文脈보다 自國語의 표현에 중점을 둔 意譯的인 가점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墨書文字釋讀口訣의 不讀字 용법과 角筆符號釋讀口訣의 화엄경의 不讀字 용법은 대체적으로 동일하며, 그 독법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墨書文字釋讀口訣과 일본의 11·12세기의 訓點資料와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부독자 용법은 「於·者·之·于·耶·而·以·則·及」인데, 한일의 화엄경에서 동일하게 부독자로 취급되고 있는 助辭類는 「於·之·于·與」이며, 일본의 화엄경에서는 부독자로, 한국의 華嚴經에서는 구결자가 가점되어 있는 助辭類는 「而·則·及」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일의 화엄경에 나타나는 부독자의 종류가 11·12세기의 訓点資料와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화엄경이라는 문장 속에서의 助辭類의 사용법에 기인하는 것인지 가점자의 가점방법의 차이에 기인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일본의 훈점자료에 있어서 부독자에 대한 독법은 11세기 이후에는 그 전의 자료보다 부독자를 읽게 되는 助辭類가 많아진다고 알려져 있는데(小林芳規 1963, 小林芳規 1982:334 以下, 築島裕 1963:217 以下), 9세기의 일본

화엄경에서의 부독자는 「及」의 항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11·12세기의 훈점자료의 부독자에 대한 독법의 성격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으며, 오래된 부독자 용법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南豊鉉(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24호, 韓國書誌學會.

_____·李丞宰·尹幸舜(2001), 「韓國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訓點語と訓點資料』 제107輯, 訓點語學會.

_____(2002), 「高麗時代 角筆點吐 釋讀口訣의 種類와 그 解讀－晉本華嚴經 卷20의 點吐 釋讀口訣을 중심으로－」, 『朝鮮學報』 제183집, 朝鮮語學會.

_____·沈在箕(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硏究(其一)」, 『東洋學』 6, 檀國大 東洋學硏究所.

沈在箕(1975), 「口訣의 生成 및 變遷에 대하여」, 『韓國學報』 1, 一志社.

朴鎭浩(2003), 「周本『華嚴經』 卷第36點吐口訣의 解讀－字吐口訣과의 對應을 中心으로－」, 『口訣硏究』 第11輯, 口訣學會.

李丞宰(2001), 「周本『華嚴經』 卷第22의 角筆符號口訣에 대하여」, 『口訣硏究』 제7집, 口訣學會.

_____(2002), 「옛 文獻의 各種 符號를 찾아서」, 『새 國語生活』 第12卷 第4号.

_____(2003), 「周本『華嚴經』 卷第五十七의 書誌와 符點口訣에 대하여」, 『한글』 262.

尹幸舜(1999), 「韓·日 漢文釋讀에서의 不讀字의 讀法」, 『訓點語と訓點資料』 第103輯.

_____(2003), 「漢文釋讀에 쓰여진 한국의 角筆符號口訣과 일본의 오코토點의 비교－「瑜伽 師地論」의 點吐口訣과 文字口訣을 중심으로－」, 『口訣硏究』 第10輯, 구결학회.

鄭在永(2001), 「誠庵古書博物館所藏 晉本『華嚴經』卷二十에 대하여」, 『口訣硏究』 第7輯.

_____ 외(2003), 『韓國角筆符號口訣資料와 日本訓點資料 연구－華嚴經資料를 중심으로－』, 태학사.

石塚晴通(1993),「中國周辺諸民族に於ける漢文の訓讀」,『訓点語と訓点資料』第90輯.
_____(2002),「漢字文化圈의 加點史에서 본 高麗口訣과 日本語初期 訓點資料」,『口訣研究』제8집, 口訣學會.
大坪併治(1961),『訓点語の研究』, 風間書房.
_____(1992),『大方廣佛華嚴經古点の國語學的研究』, 風間書房.
春日政治(1984),『古訓點の研究』(春日政治著作集6 所收), 勉誠社.
小助川貞二(2001),「加點稀薄な漢籍訓點資料における典據の問題」,『漢文古板本とその受容(訓讀)』(일본 北海道大學워크샵 발표논문집).
小林芳規(1959),「「及」字の訓讀」,『國文學 言語と文藝』4.
_____(1963),「漢文訓讀史研究の一試論」,『國語學』55.
_____(1982),「古代の文法II」,『講座國語史4 文法史』, 大修館書店.
_____・西村浩宇(2001),「韓國遺存の角筆文獻調査報告」,『訓點語と訓點資料』제107輯, 訓點語學會.
_____(2002),「韓國의 角筆點과 日本의 古訓點의 關係」,『口訣研究』제8집, 口訣學會.
_____(2002),「韓國における角筆文獻の發見とその意義－日本古訓點との關係－」,『朝鮮 學報』第182輯, 朝鮮學會.
築島裕(1963),『平安時代の漢文訓讀語につきて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_____(1978),「石山寺経藏の古訓点について」,『石山寺の研究 一切経篇一』, 法藏館.
_____(1986),『平安時代訓點本論考 ヲコト點 仮名字體表』, 汲古書院.
_____(1996),『平安時代訓點本論考 研究篇』, 汲古書院.
中田祝夫(1954),『古點本の國語學的研究 總論篇』, 講談社.
藤本幸夫(1992),「李朝訓讀攷 其一」,『朝鮮學報』143, 朝鮮學會.
劉淇(1711),『助字辨略』.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산16-1 한발대학교 일본어과〕
E-mail: hsyoon@hanbat..ac.kr
접수일자: 2004. 06. 20.
게재결정: 2004. 07. 30.

韓國の角筆符號口訣と日本の訓點において存する華嚴經の不讀字用法

尹幸舜

本稿は韓國の角筆符號釋讀口訣と日本の訓點資料の華嚴經の漢文讀法において現れる不讀字の用法を檢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漢文を訓讀するにおいて助辭に現れる不讀字はこれに該當する漢字を直接よまず、その漢字の意味に近い自國語をその漢字の前後に加点して讀むのと、その前後に何にも加点しないのと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

韓國の華嚴經の四卷において現れる不讀字は「於・之・于・與」の4種であり、日本の華嚴經においての不讀字は「於・之・于・與・則・而・及・邪(耶)・者・乎」の10種である。このうち、韓日の華嚴經では全て不讀字に用いられた「於・之・于・與」は、漢文の字句より訓讀文に現れる自國語を重視した加点態度が窺える。これとは反對に「而・則・及」の場合には、日本の華嚴經においては不讀字に用いられているのに對して、韓國の華嚴經においては點吐口訣を全て加點しているのである。

これは「而・則・及」に對して文章の內容に關係せず點吐口訣を加點したのは、このような助辭類が漢文においての接續詞用法という点が作用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が、これを讀むか讀まないかによって、漢文の讀法は非常に異なって現れるものと考えられる。卽ち、「而・則・及」の不讀字の訓讀如何は、漢文と自國語を如何に調和させながら漢文の文脈を理解したかを知るのに重要な觀點になると思うのである。このよう

な觀点からこれら「而・則・及」に點吐口訣を加點している韓國の華嚴經は、原漢文の字句を尊重した直譯的な讀法が窺えるのに對して、日本の華嚴經においてのように「而・則・及」を不讀字に用いられていることは、漢文の文脈より自國語の表現に重点を置いた意譯的な加点方法と言える。

*キーワード: 華嚴經, 不讀字, 助辭類, 角筆符號口訣, 訓點資料